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창인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조선국

'96 단기 해외선교 사역

6개국에 90여명이 참여

7월 22일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교회는 지난 주 찬양예배시간에 해외단기선교팀 파송예배를 드림으로써 1996년도 해외 단기선교 사역이 시작 됐다.

금년도 해외 단기 선교 활동은 선교위원회(위원장 노광현 장로)에서 주관하고 지원하여 인도네시아 등 6개국에 90여명이 참가하여 7월 22일부터 8월 29일까지 실시된다.

· 인도네시아

이미 지난 7월 22일(토) 출국한 인도네시아팀의 경우 금년이 4년째로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에서 여름성경학교를 도와 주고 오지에 있는 현지 교회 방문하는 등의 선교 훈련을 실시하며, 7월 30일(화) 귀국 예정이다. 특히 이번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에는 침술팀을 구성하여 김경철 장로 외 5명이 함께 사역하게 되었다.

지도에는 김찬곤 목사, 단장에 박상준 장로이다.

· 일본

그 동안 미래지도자훈련 관계로 청년 1부와 유대를 맺어오고 있던 일본 동경의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사역을 펼친다. 노방전도 및 노방에서의 무언국, 교포 가정 방문 전도 활동 및 현지 선교사들

의 '일본 선교의 전망' 등의 시간을 가지며 일본 선교의 비전과 방향을 살펴본다. 특히 앞으로 계속 일본 선교를 할 경우 그 가능성을 타진하고 조사해 보는 기회도 될 것이다.

청년1부 회원이 중심이 되고 대학부와 고등부에서도 참여하고 있다. 지도에 정광욱 목사, 단장에 김인철 집사 외 11명이 7월 31일부터 8월 7일까지 사역에 임한다.

· 홍콩

선교연구원에서 실시하는 단기 선교 사역지로, 김은태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홍콩에서의 사역을 시작한다. 8월 5일부터 12일까지 지도에 김희수 목사, 단장에 강철형 집사 외 18명의 대원이 참여하는 홍콩 단기 선교는 어린이성경학교를 도와 주고 노방전도 및 축호전도, 저녁에 초청전도집회 등으로 활동하고 중국 대륙교회를 방문하는 일정도 잡아놓고 있다.

또한 김은태 선교사의 '홍콩, 중국 선교의 비전'에 대한 세미나도 갖게 된다.

· 터키

선교열이 펴질 끓는 청년1부 젊은이들이 연초부터 계획하며 준비해 온 회교권 단기 사역이다. 김원호 협력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게 되는데 터키의 한인교회를 돌아보고, 현지 선교사로부터 회교권 선교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사역은, 주로 터키에서는 전도활동을 할 수 없어서, 불가리아 지역에 사는 터키인들에게 집중하게 된다. 그곳에서 노방전도, 방문전도 등을 하며 회교권 선교의 어려움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려고 한다. 청년1부내에서는 회교권 선교에 소명을 갖고 헌신하려는 사람들에게 이번은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지도에 김동석 목사 외 12명. 우여곡절 끝에 확정된 8월 14일부터 22일까지가 일정이다.

· 태국

태국 주재 김문수, 권오혁 선교사의 도움으로 태국 북부의 메슬, 메라, 우둔타이, 넝카이 지역을 오가며 사역을 하게 된다. 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사역, 산죽을 방문, 심방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 등을 하게 된다. 이미 출발하기 전 5월부터 매주 모여 태국 선교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했다. 단기 선교 사역의 의미, 세계 선교 현황과 선교 전략, 기독교



교 선교 역사와 우리의 선교 전략, 태국어 찬송, 율동, 단기 선교사의 소명과 헌신 등으로 모든 준비를 마치고 8월 19일부터 27일까지 사역을 하게 된다.

지도에 이홍성 목사, 단장에 송환창 장로 외 13명이 참가한다.

(사진 / 지난 주일 단기 해외선교 사역 파송식을 마치고)

인사이드

조동원 목사를 뉴질랜드 협력선교사로 파송함에 따라 교회는 제8교구 지도에 최영찬 목사를, 초동6부 지도에 한영준 전도사를, 안수집사회 지도에 이종대 목사를, 출판부 지도에 한근수 목사를 임명했다.



◆만남 사람◆

협력선교사로 떠나는 조동원 목사

협력선교사로서 뉴질랜드 충현교회로 떠나는 조동원 목사를 잠시 만나 그동안의 경위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 보았다.

▶ 갑작스럽게 가게 된 경위와 지금까지의 상황은?

▷ 저로서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뉴질랜드에 파송한 평신도선교사 김형선 집사가 뉴질랜드 충현교회를 설립하고 목회자 파송을 요청한다는 소식을 연초에 들었을 때부터 '내가 가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부담이 떠나지 않았습다. 그러던 중 그곳에서의 자녀 교육 문제로 '어렵겠구나' 생각을 해왔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반전되면서 저의 마음도 다시 확실해졌고 결국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7월 11일 뉴질랜드로 가서 7월 14일 주일에 설교를 하고 교인들을 만나 보고 돌아왔습니다. 7월 26일 혼자 출국하고, 가족들은 8월 1일에 출국할 예정입니다.

▶ 그곳 교회의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 저는 그곳에 가서 교인들과 처음 만났을 때에도 '저는 목회자로 왔습니다'고 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 충현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돌보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현재 13가정의 50여 명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6개월 동안 목회자가 없었는데도 한 가정도 이탈하지 않고 기다려 준 점입니다. 또한 가정 모두가 교인이기에 참 이상적이며 이미 자체적으로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청년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녀들로 구성된 기악합주단이 있는데 이는 온 가정이 예배에 참여하며 그 예배를 위해 돕고 있다는 점이 무척 인상적이며 진정한 교회로서의 가능성을 보게 했습니다.

앞으로 그곳에서 전 교인을 한 명 한 명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우는 제자 교육을 중점으로 한 교육 목회, 총 인구 400만 중 100만이 사는 오클랜드에 있는 25개 정도의 한인 교회들이 연합하며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할 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문서를 통한 문서 목회, 각 개인이 교회에 와서 영적 충전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이용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해 주는 영성 목회(수도원 목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 떠나시면서 교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은?

▷ 이번에 이런 준비를 하면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옴으로 양으로 많은 분들이 기도로 물질로 도와 주셨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빛을 켜셨습니다. 특히 동역자들이 내 일처럼 나서서 여러 가지를 도와 주셨습니다. '동역자의 사랑'을 너무도 깊이 느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충현교회를 매우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 목사님은 특히 문서선교에 관심이 많으시고 여기서도 출판부 지도를 계속 맡으셨는데 충현교회 문서선교의 전망과 방향에 대해서?

▷ 문서선교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글로 말씀이 전달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었고 또한 드러낼 수 있었겠습니까. 이는 참으로 파급 효과가 크고 또한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갈 수 없는 곳까지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가 아낌없는 투자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날의 불확실함과 두려움을 모두 하나님께 의뢰하고 오히려 긍정적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떠나며 몇 가지 기도의 부탁을 했다. '뉴질랜드 충현교회가 말씀과 사랑과 찬양이 충만한 교회로 자라나도록, 자유롭게 집회할 수 있는 집회 장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재 방문비자로 가는데 취업비자로 바꾸는 문제와 나아가 영주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한창 교육을 시켜야 하는 내 자녀(은혜-중2, 은영-초6, 은실-초4, 성훈-초1)의 교육 문제도 오로지 하나님께 맡기고 씩씩하게 떠나는 목사님이 계속해서 힘있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를 위해 기도하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자. <형>



충헌강단

● 김창인 목사의 시편 강해 ●

환난 중에 있는 성도의 간구

(시편 24:1-10)

본 시편을 기록할 당시의 배경에 대해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앞길 이 캄캄한 밤중에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어려운 처지에서 낙심하지도 아니하고 못된 놈들이라고 원망 저주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의 은총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면서 자기와 아울러 백성까지 돌보아 달라는 기도를 드린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자기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울부짖는 기도가 이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것이 확실한지 정확치 않습니다.

1. 다윗의 기도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다윗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영혼이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겸손한 태도로 기도했습니다. ‘주’라는 말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말입니다. 즉 ‘모든 것의 주인되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종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귀한 회생적 충성을 각오하는 영혼이 부르짖는 간절한 태도가 다윗의 태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즐거울 때에도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감사하고 겸손히 조심해야 되고, 어렵고 슬플 때에도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명령을 기다리는 것이 옳은 줄 압니다.

2.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 어떠합니까(25:2-7, 16-22)

(1) 수치를 당치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신자가 전쟁에 지면 믿는 사람들이 고생하고 망신 당하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필요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믿음이 약한 자는 타락하고 안 믿는 사람은 믿을 마음이 애초에 안 생기겠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백성들이 망신 당하는 일은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2) 갈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반란을 만나 도망가는 늙은 다윗이 밤을 만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갈 길을 보여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영의 눈을 열어 주셔서 갈 길을 깨닫게 해달라는 것이며, 갈 길을 자세히 달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이지만 이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면 갈 길을 알고, 있을 데를 알고, 해야 될 일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욕심에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교만으로 앞길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겸손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앞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3) 내 죄는 기억지 마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죄가 드러난 다음에 그것을 거짓말로 핑계하려고 하는 못난 인생들인데 다윗은 ‘아무래도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내 죄값이다. 저 사람들이 나쁜 것만이 아니고 내 죄값으로 이 벌을 받게 되었다’ 하고 자기의 죄값을 인정하면서 ‘죄값으로 당한 어려움은 죄가 용서함 받아야만 해결될 것이니 살려달라는 기도보다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부터 먼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만 기억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4) 고독한 자의 외로운 자리를 면케 하 주옵소서

사람이 세상에 날 때부터 부모님과 같이 지내면서 외로움 없이 지내고, 형제 가운데서 외로움 없이 지내고, 친구들과 만나서 외로운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이 점점 나이 들어가는 동안에 외로움이 옵니다. 늙어 가면서 점점 외로움이 옵니다. 높은 벼슬에 있다가 툭 떨어지면 찾아오는 손님 없는 외로움, 건강하다가 몸에 병들면 침상에서 앓는 것도 괴롭지만 돌아다보는 사람이 없는 외로움은 보통 괴로움이 아닙니다.

나이 많아질수록 외로워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인생의 그림입니다. 죽음의 길도 혼자 가게 되지 그 누구와도 같이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끝까지 외로움을 없애 주시는 나의 사랑하는 친구요, 죽음 정거장까지 같이 가 주시는 분입니다. 감옥에도, 병상에도 예수님은 같이 가 주십니다. 태양이 있는 곳에 밝이 없고 예수님 계신 곳에 외로움이 없습니다. 조용하면 기도가 나오고 조용하면 성경 불 마음이 생깁니다.

(5) 근심에서 건져 주옵소서

근심은 문제를 해결할 힘이 모자랄 때 생깁니다. 그것은 천길 만길 패인 웅덩이라서 혼자서는 못나오고 남이 끄집어내야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근심에 빠졌고 내 지체, 내 힘으로는 살아날 수 없는 웅덩이에 빠졌사오니 나를 끄집어내 주옵소서”

(6) 내 죄를 사하소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원수에게 책임을 자우지 않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며 책임을 집니다.

(7) 내 편이 되어 주옵소서

원수가 열 사람, 백 사람 너무나 많 습니다. 많을 뿐만 아니라 너무 악독합니다. 빼도 안 남기고 죽여려고 덤비는 사람들뿐입니다. “이런 잔인한 원수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8)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 지금 나는 도망다니서 사람 볼 때에는 피신할 데가 없는 사람 같으

겸손히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서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결심하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그의 자손에게는 땅을 상속하는 복까지 준비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악마의 그물에 걸리지 않고 외로움을 모르고 사는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나 나는 하나님 품 안에 피신하였사오니 나를 끝까지 품어 주옵소서. 또한 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왕이 도망가다가 잡혀 죽으면 왕을 따라오던 백성들이 불쌍해 집니다. 하나님, 나만 불쌍히 여기지 마시고 철없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나 하나만 살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나 하나 때문에 나와 관계 있는 다른 사람까지 폐가 되는데 나를 구원해 주시면서 그 사람에게까지 복을 안기워 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3. 다윗의 신앙고백이 어떠합니까(25:8-15)

첫째,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 강포한 자, 약자를 밟는 자, 윗 사람을 거역하는 자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온유한 자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고 정성을 다하는 자를 돌보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실력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정성을 쏟는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섯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사람이 가야 될 길을 늘 가리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섯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의 자손에게는 땅을 상속하는 복 주시기를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공경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아 떨고 조심하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몸에 건강 주시고, 마음에 근심을 모르는 평안을 주시고, 일에 실패를 모르는 성공을 주시고 전쟁에 패배를 모르는 승리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땅을 상속한다’는 말은 첫째, 자손들이 창성한다는 말입니다. 둘째, 부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셋째, 칭찬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돈 모으다가 인심 잃어버리고

욕 먹기가 쉬운데 돈을 모으고도 인심을 얻고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넷째, 권세를 얻는다는 말입니다. 다섯째, 천국을 소유한다는 말입니다.

일곱째,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는 자와는 영원토록 친밀한 교제를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덟째, 하나님은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맹스러운 짐승도 그물에 걸리면 끝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왕도 원수의 그물에 걸리면 꼼짝 못하고 눈이 멀뚱멀뚱해서 끌려가야 됩니다.

삼손은 들릴라의 그물에 걸렸습니다. 그물은 무서운 것입니다. 잘 생긴 남자가 예쁜 여자의 그물에 걸리면 큰일입니다. 또 예쁜 여자가 돈 많은 남자의 그물에 걸리면 큰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원수의 그물에서, 원수의 모략에서, 유혹에서, 함정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니 우리는 새같이 날개치며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기도를 바로 하는 신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서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결심하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그의 자손에게는 땅을 상속하는 복까지 준비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악마의 그물에 걸리지 않고 외로움을 모르고 사는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심의 웅덩이에서 건져 달라고 기도하고 내 죄값이 나를 괴롭히오니 숨은 죄까지 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하나만 살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나 하나 때문에 나와 관계 있는 다른 사람까지 폐가 되오니 나를 구원해 주시면서 그 사람에게까지 복을 안기워 달라고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 여름성경학교를 마치고 *

초등1부 여름성경학교를 마치고

'기쁨을 만드는 어린이'와 함께한 시간들

강현주(초등1부 교사)

신 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라고 전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에 기초를 둔 신앙 교육이 절실히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교훈적 말씀이다. 학령 초기 아동, 특히 초등학교 1학년의 신앙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신앙이 성장하는데 그 기초를 두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로 여름 방학을 이용, 주일이 아닌 주간을 이용한 여름성경학교는 어린이 신앙 교육 및 훈련에 있어서 그 의미가 보다 더 크다고 해야 할 것이다.

1996년도 여름성경학교 총주제는 '성령으로 받는 우리의 성품'으로,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초등1부 성경학교의 주제는 '기쁨을 만드는 어린이'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이 인류에게 주는 기쁨의 소식이며, 성령을 좇아 행하는 삶, 성령으로 성품이 변화받으며 사는 생활이 기쁨의 열매임을 알게 함으로써, 기쁨의 세상을 만드는 어린이가 되게 하는 것이 그 중심 내용이었다.

이러한 성경적 배경 속에서 어린이를 위한 신앙 공동체 훈련 프로그램이 손미희 전도사님의 계획된 구상으로 알차고 유익하게 준비되어 갔다.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배우는 말씀들이 생활속에서 열매 맺어 어린이들의 생애에 잇을 수 없는 기간이 되도록 하기 위한 교사들의 노력이 기도으로 시작되었다. 박장준 장로님을 비롯하여 초등1부 교사들의 릴레이 금식 기도와 매일 밤 10시 기도 시간이 무언 중에 진행되어 갔다. 또한 더 새롭고 생동감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생활에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질 어린이 신앙 교육 자료로 몇차례 활용하려는 시도는 많은 교사들을 감동시켰고 따라서 적극적 활동으로 동참해왔다. 또한 초등1부 어린이들 뿐만 아니

라 학부모님들도 많은 관심과 협조로써 시간적, 물질적, 활동적 후원을 아끼지 않으셨다. 이것은 진정 교사와 어린이와 학부모님 서로가 함께 하는 참다운 공동체 훈련의 모습 그대로였다.

경건한 예배와 찬양과 율동으로 신나는 여름성경학교가 시작된 첫날, 썰렁한(?) 초등1부교실이 예쁘고 다채롭게 꾸며졌다. 온 가족이 재미있게 찍어 여러 모양으로 정성껏 만들어 보내 주신 가족 소개 사진을 뒤 현판에, 각반 어린이들이 돌아가며 매일 꼬박꼬박 쓴 필사 성경을 펼쳐 책상 위에, 그리고 오색의 화려한 풍선들이 둥글둥글 매달려 머리 위에 장식되었다. 또한 1996년 초등1부의 기도 제목과 상반기 행사 보고서, 각 과장님들의 과 자랑, 그리고 어린이들의 신앙적 표현이 글과 그림으로 나타난 벽신문이 삼면으로 돌아가며 전시되었다. 특히 '만약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난다면 ...'을 위한 어린이들의 작품은 깨끗하고 순진한 살아 있는 신앙의 고백들이어서 실로 많은 웃음을 자아냈다. 첫날 있었던 찬송 부르기반, 공작반, 신문 방송반의 특별반 활동은, 어린이들에게 각반의 특성과 의도를 충분히 인식시켜 교사와 함께 하는 재미있는 시간이 되었으며, 어린이들의 뛰어난 실력이 유감없이 발휘되어 뜻깊은 시간으로 남았다.

'영철이의 체험'이란 제목의 어린이 성극 TV를 갈릴리홀에서 상영했던 둘째날은, 출연했던 어린이와 교사들에게 박수와 칭찬이 끊이지 않았던 날이었다. 그것은 실제 연기를 실감나게 할 한 것도 있었지만, 3주일의 시간 동안 대본 설정, 대사 암기, 연기 연습, 의상 및 배경 그림 제작, 전문 촬영팀의 10시간 이상의 비디오촬영, 최상의 상영을 위한 이들의 완벽한 화면 편집, 그리고 출연진 모두를 위한 학부모님들의 맛있는 간식 제공 등등 ... 이루어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신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이루어 줄 수 없는 도우심 때문이었음을 확신한



다. 유명 아역 배우 못지 않은 천연스러운 연기로 칭찬을 받은 4명의 어린 친구들과 화면 하나 가득 웃을 댄 넓은(?) 얼굴로 인기를 모은 두 분 선생님의 연기는 박수 갈채를 받을 만큼 잘 연출되었다. 잠을 못 이룰 정도의 수고와 애심의 결과로, 성극을 본 많은 어린이들의 기억 속에 바른 주일 성수에 대한 생각과 신앙관을 심어주며 '한번 더 보고 싶은'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게 하였다.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의 생활을 체험했던 셋째날은, 10조로 나뉘어 신앙의 여러 가정을 직접 방문해 절서와 순종 또한 신앙인의 생활을 보고 배우는 '기쁨 순종 훈련'을 실시했다. 십자가의 군기 대신 '기쁨 순종 훈련' 조의 피켓을 들고, 힘차게 주제와 찬송을 부르면서 각 조장님들의 안내를 따라 어린이들을 초청한 가정을 향해 파송되었다. 초등1부 학생들을 반갑게 맞아 주시고 나눔의 시간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돌아왔다. 직접 콜라 더 맛있는 간식을 먹으면서 포크댄스를 추었던 가면 무도회 시간은 즐겁기만 했다. 또한 이 훈련을 통해 배운 것을 다짐하는 결단의 글을 따라 읽을 때는, 코끝이 시리고 가슴이 떨려움을 느꼈다. 성경학교 3일 동안은 어린이들이 주어진 입장으로 참석하고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 선서와 결단 및 특별활동 내용을 신문 방송반의 기자 어린이들이 직접 외어서 대화 형식으로 발표하는 참신한 시간도 활용해 보

았다. 벌써 30도를 훨씬 웃도는 무더위 속에서도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함께하며 순종의 성품을 배우기를 노력하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성경학교의 신앙 교육이 학교 교육 이상으로 중요함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모든 순서를 마치며 헤어질 때는 교사와 학생들 서로가 시원 설렘한 환성으로 기쁨과 아쉬움의 인사를 나누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모든 시간들이 여호와 이레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느끼게 한다. 모든 성경학교 기간 동안 어린이 선교를 담당한 작은 선교사로서의 우리 교사들은 어린이 신앙 교육에 있어서 반드시 먼저 훈련되어야 함을 자각한 좋은 시간이 되었다. 이제 초등1부는 1996년도 여름성경학교를 종성으로 온 힘을 다해 끝마쳤다. 모든 결과와 평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려 드리면서, 초등1부는 다시 주일학교 교육을 위해 주일을 맞아 최선을 다하는 부서로 돌아왔다. 미래에 귀한 일꾼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여 이 나라에 기둥이 될 초등1부 어린이들을 위해, 무한한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더 나은 비전을 바라보는 초등1부 교사들은 항상 기뻐하며 기도 가운데 주일을 기다리고 있다.

기억이 생생한
'회개'의 밤

양현석(초등4부)

7월 18일, 초등4부 여름성경학교가 시작됐다. 집에서 출발해 교회에 도착하니 노래를 부르면서 율동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박노철 전도사님과 함께, 찬송도 부르고 성경 말씀도 읽었다.

12시 30분부터는 성경퀴즈대회가 있었다. 정답을 맞추어서 1루, 2루, 3루로 뛰고 그랬다.

점심밥을 먹은 후 '천로역정' 시간이 되었다. 우리 단은 기도회개회 문, 화평의 문, 달란트의 문, 실천 양심의 문, 보물찾기 문, 지옥의 문, 성종이야기 문, 영차레임 문 등 8개지 문을 들어갔다 나왔다. 그 중 지옥의 문에서 온 아이들도 볼 수 있었다.

저녁 8시가 되자 성극을 보았다. 성

극 제목은 '영철이의 체험'이었다. 영철이의 체험이 너무 재미있었다.

밤 12시가 되어서야 우리는 취침에 들어갔다.

다음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새벽기도를 드린 후 체육대회를 하였다.

나는 회개의 밤에서 전도사님 말씀, 기도 등 여러 가지 때문에 모든 아이들에 눈물을 펴평 운 것이 기억에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너무나 재미있었다.

화평케 하는 어린이

김효남(초등4부)

나는 이 여름성경학교에서 참 느낀 점이 많다. 천로역정에서 지옥의 방이 제일 재미있었는데 실제로 지옥은 정말 무섭고 음침하고 뜨거울 것 같다. 생각만

해도 오싹하다.

그리고 새벽기도회에서 성경도 읽으니 새벽에 공기도 좋고 몸도 가벼웠다. 엄마가 왜 새벽기도를 매일마다 가는 지 이해가 충분히 간다.

그리고 성극도 재미있게 보았다. 특

히 영철이가

꿈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

을 때 꿈 처

럼 행동하지

않고 열심히

전도해서 3

명이나 전도

한 것을 보

니 나도 그

래야 되겠다

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

고 열심히

성극을 만들

어서 하신

선생님들께 감사지만은 재미있게 보았고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고 싶다.

전도사님의 설교도 정말 가슴에 남았다.



토막소식

▶ 중등3부에서는 내일(7월 29일)부터 31일(수)까지 충현기도원에서 '미래시대의 천국 일꾼'이라는 주제로 여름수련회를 실시한다. 강사는 이홍성 목사이다. 30일 저녁 부흥회 시간에는 학부모들을 초청하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다.

▶ 선교위원회에서는 오늘 오후 3시에 선교관 406호에서 선교 담당 교사 모임을 갖는다. 해당되는 교사들은 빠짐없이 참석하기를 바라고 있다.

▶ 충현오케스트라수련회가 오는 8월 5일(월)부터 8일(목)까지 과천에 있는 구세군사관학교에서 열린다. 이번 수련회는 각부 오케스트라 대원과 참가를 희망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성

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박경한 목사, 이수철 집사, 장기범 선생, 이귀자 사모, 김정수 교수가 강사이다. 찬양위원회에서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다. 신청은 찬양위원회에서 받으며, 회비는 35,000원이다.

▶ 우리 교회 핸드벨콰이어는 오는 8월 1일부터 5일까지 미국 뉴멕시코에서 열리는 핸드벨콰이어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오는 7월 30일 출국한다. 이 대회에 지휘자 외 9명의 단원이 한국을 대표해서 참가하는 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고 10일 귀국할 예정이다.

▶ 크로마하프·만돌린 연주대에서는 대원을 모집하고 있다. 연락은 크로마하프는 김옥순 집사(548-6916), 만돌린은 이연순 집사(562-0431)에게 연락하면 된다.

예비신랑신부교육부 96-8기 수강생 모집

결혼의 순결과 신성이 점차 무시되고 가정의 행복 척도를 '돈'으로 계산하는 등, 인륜과 도덕이 땅에 떨어져가는 요즘 세대를 바로 잡아, 결혼을 앞둔 젊은 남녀 성도들에게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결혼관과 가정관을 심어 주기 위하여 교회에서는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예비신랑신부교육부(부장 송환창 장로)에서는 2개월 과정의 알찬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96-8기 수강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등록접수: 교육관 103호, 208호
- 교육기간: 8월 4일(주일) ~ 9월 29일(주일)
- 교육장소: 교육관 208호

제2교육관 주차장 이용해 주기를

특히 찬양예배후에 돌아가는
제직들의 애용을

차량관리부는 제2교육관 지하 주차장이 완비됨에 따라 제2교육관 지하 주차장을 개장하고 주일에 주차를 시키고 있다.

제2교육관 지하 주차장은 지하 1~4층으로 총 300대 가량을 주차시킬 수 있어 교회의 주차난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환기 시설 및 조명 등 주차장으로서 모든 시설을 마련하고 있으며 주일에는 교회에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다.

차량관리부에서는 지하 3, 4층은 특히 직분자 및 오랜 시간 동안 주차할 성도들이 애용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제4차 학습 및 세례식 8월 2일(금) 갈릴리홀에서

교회는 금년 들어 네번째로 실시하는 학습 및 세례식을 오는 8월 2일(금) 오후 7시에 갈릴리홀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학습·세례·유아세례·개종 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7월 28일(주일)까지 교구 담당 교역자에게 신청하여 절차를 밟도록 기다리고 있다.

신청한 사람은 8월 1일(목) 오후 7시, 교육관 307호에서 실시하는 예비교육과 문답을 마쳐야 된다.

이영실 선생

듀오 피아노 콘서트 열어



우리 교회 초등5부 교사인 이영실 선생(사진)의 듀오 피아노 콘서트(Duo Piano Concert)가 8월 5일(월) 오후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

서 열린다.

이영실 선생은 조선일보 콩쿠르에 입상하고, 서울예고와 경원대학교 음악대학 피아노학과를 졸업했다. 졸업 후에도 1년에 한 차례씩 피아노 콘서트를 열어왔다.

이영실 선생은 우리교회 이창호 장로와 이윤자 집사의 딸이다.

충현복지관 특수교사 모집

충현복지관에서는 정신지체, 자폐아동들을 지도할 특수교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자격: 특수교사자격증 소지자(예정자), 특수교육 경험자 우대
- 제출서류: 자필이력서(사진 포함), 최종학 교성적증명서, 자필소개서 각 1통
- 접수마감: 8월 11일까지(마감일자 우편소인 유효)
- 문의: ☎ 564-4885, 562-0548

청년1부 여름수련회를 마치고

6월행사와 수련회, 단기사역으로 연결된 사랑과 헌신의 여름수련회

이 혜 경(청년1부)

96년을 시작하면서 청년1부에서는 '함께하는 청년1부가 되자'라는 주제로 청년부 지체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모든 일에 함께 이루어 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망들이 많았다.

행사를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지체들이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했고 우리의 지체나 생각만으로는 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간구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또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셨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채워 주셨다.

'96 함께하는 청년'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고 감격스럽다.

자발적으로 나선 지체들의 손길과 교회에 많은 분들의 기도와 사랑과 관심으로 인하여 일을 함에 있어서 힘을 얻을 수 있었다.

6월 29일 인간적 생각으로는 걱정밖에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대로 일을 이루어 가셨다.

바람이 세차게 불고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지체들은 아침 일찍부터 뚝뚝

고 모여들었고 하나씩 준비해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전사회, 바자회, 일일차집, 찬양콘서트 모두가 처음으로 하는 일인지라 서툴고 부족한 것 많았지만 불평보다는 감사함으로 힘들어 지쳐가기보다 기쁨으로 감당해 가는 지체들의 모습을 통하여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들이었다.

우리는 잊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를 향하신 그 아름다운 사랑을!

6월 30일에 있었던 '청년 큰 잔치'에 있었어도 충현의 젊은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회는 나오지만 청년부를 나오지 않는 지체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눌 때 정말 기쁨으로 교체하고 즐거워하는 시간들이 되었다. 이제는 그들이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로서의 자기 역할들을 감당해 가며 믿음을 성장시켜 가는 성숙한 모습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함께하는 청년'의 불씨를 물고 여름수련회는 시작되었고 200여명이 넘는 지체들의 참여로 여름수련회는 진행



되었다.

행사를 준비하거나 진행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과 지체 없음을 여전히 자리잡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를 향하여 강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번 여름수련회는 "우리는 땅 끝까지 간다"라는 주제로 여름 단기사역을 떠나는 지체들을 파송하는 파송식 수련회였다. 떠나는 지체들과 보내는 지체들과의 기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지체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는 기도의 파트너를 정하는가 하면 그들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를 하기도 했다.

터키팀의 항공권 문제로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을 주셨다. 너무나

도 감사했다. 우리 지체들이 합심하여 한마음으로 당신께 부르짖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셨던 것 같다.

떠나는 지체들은 사역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군병으로서 힘차게 사역을 감당해 나갈 것이고 남아 있는 자체들은 끊임없는 기도와 관심으로 한마음이 되어 함께해 가는 사역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기대가 된다.

(사진 / 사역을 위한 파송식을 겸한 수련회로 모든 행사가 '전도·선교'로 집약된 수련회였다. 수련회를 통해 여름 선교, 전도 사역에 참여한 지체들이 늘어나서 즐거운 비명을 지르기도 했다. 사역지에서 실제로 행할 개인 전도를 위해 진지한 자세로 사역리 전도를 실행하는 모습)